

[리뷰]

개작 장편소설 『이춘풍전』의 재발견

장 두 식*

I. 『이춘풍전』 개작의 의미

김영석이 1947년 현대소설로 개작해서 발표한 장편소설 『이춘풍전』은 일반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텍스트다. 이 텍스트는 김영석 문학 연구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존재하나 알려지지 않은 소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계 소설로 추정되는 원작 『이춘풍전』은 조선시대 지배층들의 위선적인 생활과 부패상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그리고 있는 텍스트다. 때문에 일제치하 풍자적인 소설을 창작하였던 김영석이 『이춘풍전』을 개작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그가 해방직후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하면서 문학대중화론을 주창한 이론가였다는 점과 개작된 『이춘풍전』이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발간한 협동문고로 출간되었다는 점이 다분히 문제적이다. 즉 『이춘풍전』의 개작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함축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개작된 『이춘풍전』의 소개와 원작과의 일차적인 비교를 통하여 문학사적인 성격을 범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단국대학교 교수, gato3@dankook.ac.kr

II. 해방직후 발간된 배경

1. 협동문고의 성격

개작 장편소설 『이춘풍전』은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발행한 협동문고 4-2권으로 출간되었다.

조선금융조합연합회는 1907년 농민과 지방의 중·소상공업자 등 서민층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각 지방에 설립된 금융조합으로 출발하였다. 1928년에는 지방 금융조합들의 연합체인 조선금융조합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운영상의 문제로 해체되고 1933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로 발족하였다. 조선금융조합연합회는 일제치하 최대의 금융단체로 1945년에는 912개의 단위조합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부조직으로 전국에 3만 4,345개의 식산계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방대한 조직망을 통하여 식민지 금융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친일활동 때문에 해방이 되자 농민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으로 개편하자는 움직임과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와 농민조합전국총연맹, 서울시 인민위원회와 같은 좌익단체들의 압박을 받았다. 그리하여 조선금융조합연합회는 미군정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민심을 얻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1946년 해방 이후 첫 번째 3·1운동 기념일 행사와 8·15행사를 전체직원을 참여시켜 성대하게 진행하였다. 또한 「독립선언서」 1,000부를 제작하여 무상 배포하고 김성철의 『조선역사』 초판 5만 부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한글과 국사 강습회를 개최하고, 유열의 『알기 쉬운 한글강좌』 8,000부를 발행하고 농민계몽과 위안을 위한 순회 영사회도 개최하였다. 협동문고 발행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¹⁾

협동문고는 농민의 계몽, 학문과 예술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제

1) 최재성, 「해방~625전쟁 직전 시기 금융조합의 조직 재건과 그 중심인물」, 『한국근현대사연구』 4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176~177쪽.

1부 학술, 제2부 농민계몽, 제3부 고전, 제4부 민중예술 등 총 4개 분야로 기획되어 발간되었다. 이 시기에 발간된 책들은 강정택의 『농촌 문제 입문』, 안희남의 『춘향전』, 박태원의 『홍길동전』, 이명선의 『홍경래전』, 김남천의 『토끼전』, 채만식의 『허생전』 그리고 이석구가 박지원의 한문 단편소설 6편을 번역한 『양반전』 등이었다. 이러한 책들은 당대 독자들의 기대지평선에 맞는 고전소설을 현대소설로 개작하거나 번역한 책들이었다. 그리고 필자들은 대부분이 좌익계열 작가들이었다. 이 시기 협동문고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목적과 좌익계열의 선전을 위한 목적이 중첩되어 있었다.

2. 작가 김영석의 위치

김영석은 1937년 평론 「조선시의 편영」을 『동아일보』에 발표하고 1938년 『동아일보』 주최 신인문학 콩쿨에서 단편소설 「비둘기의 유혹」이 당선되면서 등단하였다. 김영석의 생몰연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그가 1913년 10월 7일생이고 5남 1녀 중 장남이었으며 동성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보성전문 상과에 입학하였으나 가정형편으로 중퇴하고 회사에 취업했다는 논의도 있다.²⁾

그의 문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등단부터 해방 전까지로 단편소설 「비둘기의 유혹」, 「춘엽부인」, 「월급날 일어난 일들」, 「형제」, 「신혼」, 「상인」, 「좁」이 있다. 대부분이 풍자적인 수법의 텍스트들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해방 직후부터 월북하기 전까지로 단편소설 「혜란의 수기」, 「코」, 「깨깨꾼」, 「전차운전수」, 「금전문제」, 「지하로 뚫린 길」, 「가방」, 「폭풍」, 「격랑」 그리고 고전개작 장편소설 『이춘풍전』, 소설집 『지하로 뚫린 길』을 발표하였다.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하면서 풍자적인 텍스트와

2) 윤희영, 「김영석 문학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8.

함께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계급투쟁을 형상화한 경향적인 텍스트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문학대중화에 관련한 평론들을 발표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50년 6.25전쟁에서부터 1960년 중반까지 북한에서 활동하던 시기로 단편소설 「화식병」, 「승리」, 「노호」, 「적구에서」, 「이 청년을 사랑하라」, 「봄」, 「원썬을 잊지말라」, 「지휘관」, 「별」, 「고지예로」, 「그가 그린 그림」, 「보배손」과 그리고 중편소설 『젊은 용사들』, 소설집 『격랑』, 장편소설 『폭풍의 력사』를 발표하였다.

이렇듯 김영석은 반제국주의와 반자본주의적인 주제의식이 뚜렷한 작품 활동을 한 월북작가라고 정리할 수 있다. 때문에 그가 『이춘풍전』 개작을 한 이유는 작가 개인적인 성향과 함께 문학외적인 동기도 작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III. 텍스트 의미망

1. 개작 의도와 방법

고전소설 『이춘풍전』을 개작한 작가의 의도는 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풍은 어디까지나 허랑방탕하기만한 사람이었고 또 지금 우리가 깨끗이 씻어버려야 할 봉건적(封建的)인 낡은 생각과 풍습에 흠뻑 젖은 사람이었다. 그러한 이춘풍을 통하여 나는 이 이야기속에서 세력(勢力)을 갖인 몇몇 사람이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해독인지를 강조하고자 했다.³⁾

3) 김영석, 『이춘풍전』 협동문고 4-2, 조선금용조합연합회, 1947, 110~111쪽.

작가는 허랑방탕하고 봉건적인 인물인 이춘풍을 통하여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형상화하려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고전 『이춘풍전』이 이춘풍이라는 알자를 통하여 가정 내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의 배금주의를 풍자하는 판소리계 세태소설이었다면,⁴⁾ 이 텍스트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비판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작 의도는 해방직후 박헌영의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8월테제)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문화가동맹의 문학대중화론과 관련이 깊다.

대중을 위한 문학을 하여 문학이 대중자신의 문학이어야만 우리는 문화반동과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을 대중화해야 한다. 문학을 대중화하려면 반드시 또 문학운동을 대중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생활은 인민대중의 생활과 같아야 한다. 우리의 생활감정이 인민대중의 생활감정과 융합되어 우리의 소설과 시가 인민대중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전인민 대중을 독자로 하는 참말 위대한 문학창조자라 할 수 없다.⁵⁾

작가는 해방직후 좌익문학 진영에서 문학대중화 논의에 깊이 참여를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춘풍전』 개작은 단순히 고전소설을 현대 소설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김남천이 당대 문학인들의 임무를 문맹퇴치, 민족문화 발굴, 고전의 유산상속, 불건전한 악조류와의 투쟁을 통하여 대중들을 각성시키고 것이라는 주장과 같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⁶⁾

작가는 『이춘풍전』의 개작 방법을 후기에서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춘풍의 원 이야기는 아즉 이야기를 지은 사람도 알 수 없고, 지은 때도 자세히는 알 수 없다. 또 책으로 된 것도 극히 드물어서, 요지음 겨

4) 권오숙, 「『베니스의 상인』과 〈이춘풍전〉의 비교문학적 연구」, 『Shakespeare Review 50.1』,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14.

5) 김영석, 「문학자의 새로운 임무-문화공작자로서의 문학자」, 『백제』 2(2), 1947, 34~37쪽.

6) 김남천, 「문학의 교육적 임무」, 『문화전선』, 1945.

우 한 권의 사본(寫本)을 얻어, 그것을 미천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꾸며 냈다.

말하자면 활자(活字)로 된 이춘풍전은 이것이 처음일게다. 그러나 나는 이야기를 꾸밀 때 사본에 충실하여, 이야기 줄거리와 이야기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되도록 원 이야기 그대로 살려가기에 애썼다.⁷⁾

인용된 부분을 보면 고전소설 『이춘풍전』이 작자와 창작시기가 불명확하고 활자화된 책도 없이 필사본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춘풍전』은 원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필사본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개작은 작가에게 일정부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사본에 충실하여 줄거리와 사건을 원 이야기 그대로 살려가기에 노력했다는 진술 속에는 작가의 임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 작가에 의해 개작된 텍스트는 고전소설 『이춘풍전』에는 없는 삽화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고 춘풍, 춘풍의 처 김씨, 박덕만 등 입체적인 성격의 인물들이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호조참판 최익수와 같은 악인이 등장하여 원작에는 없는 새로운 갈등구조를 형성화하여 신분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원작의 남존여비, 가부장제의 폐해와 지배층의 비윤리성 등에 대한 풍자에서 사회적 모순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줄거리 요약

서울 광석골 사는 이춘풍은 늙름한 풍채를 가지고 있지만 건전한 일과는 거리가 먼 파락호다. 그는 유곽골에 사는 기생 월향에게 빠져 재산을 탕진한다. 그는 패가망신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호소를 듣지 않고 오직 주색잡기에만 몰두하는 탈선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그는 벼슬을 사서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상인 박덕만과 세도가 최참판 사이를 연결해 주고 구

7) 김영석, 『이춘풍전』, 110쪽.

문을 췌겨 기생놀이 자금을 췌기려 한다. 하지만 최참판의 농간에 돈만 빼앗긴 박덕만의 원망만 듣게 된다. 그는 아내 김씨에게 건전한 가장이 되겠다는 수기를 써주지만 마음은 계속 월향이에게 가 있었다.

춘풍은 유선달 덕분에 최참판 환갑잔치에 쓸 평양방물을 사오는 일이 맡게 된다. 돈은 호조에서 나온 이천냥과 김씨가 어렵게 모은 돈 오백냥이었다. 평양에 도착한 춘풍은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평양기생 유추월에 빠져 이천오백냥을 모두 탕진하고 추월의 하인으로 전락한다.

춘풍을 기다리던 김씨는 남편이 보낸 안세일이란 자를 통하여 전후사정을 알게 된다. 때마침 이웃 사는 김 정승의 자제 김인주가 평양 감사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회계비장으로 따라간다. 회계비장으로 변장한 김씨는 추월의 집에 행차하여 춘풍의 죄를 물어 곤장 10대를 치고 추월에게는 춘풍의 돈이 나랏돈임을 밝히고 이를 편취한 죄를 물어 곤장 20대를 치게 한다. 이에 놀란 추월은 이천오백냥을 모두 춘풍에게 돌려준다. 돈을 돌려받은 춘풍은 먼저 좋은 망건과 갓을 사는 등 입성을 갖추고 맛있는 음식부터 사먹는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기 전날 다시 추월과 밤을 보내고 이백냥을 놓고 나온다. 집에 돌아온 춘풍은 월향이와 다시 놀 궁리를 하는 등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이에 분개한 김씨는 다시 회계비장으로 변장하여 춘풍에게 평양에서 일을 상기시키며 혼을 낸다. 춘풍이 어느 정도 잘못을 깨닫는 것을 보고 김씨는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춘풍은 김씨 때문에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된다. 그 후 춘풍은 우연히 덕만의 모친 환갑잔치에 갔다가 월향을 만나 다시 정욕을 느낀다. 하지만 유선달이 자기 때문에 의금부에서 곤장을 맞고 죽었다는 덕만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춘풍은 허랑방탕한 자기 때문에 유선달이 죽고 아내도 아까운 청춘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쓸쓸해지고 세상이 무섭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덕만과 월향이 모르게 잔치집을 빠져 나온다.

3. 원작과 개작의 비교

앞 절의 줄거리를 통하여 고전소설 『이춘풍전』과 개작 텍스트의 차이점을 개략적으로 살필 수 있다.

원작을 춘풍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1)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진한 춘풍이 아내에게 가사를 맡기면서 굴욕적인 수기를 써준다. 2) 아내가 치산하여 모은 돈과 빚낸 돈을 가지고 장사하러 가서 기생에게 흘려 돈을 다 뜯긴 끝에 사환노릇까지 하는 수모를 당한다. 3) 남장비장이 된 아내가 그를 구출할 때 때까지 맞으며 굶신 거리는 등 극도의 비참함을 경험한다. 4) 집에 돌아와서 거짓과 뻔뻔함으로 위세를 부리다가 아내에게 망신을 당하다와 같이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⁸⁾ 이러한 중심 모티프를 관류하는 것은 풍자와 해학이다. 원작이 판소리계 소설의 이원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작 텍스트 문체는 판소리계 소설의 문문체적인 특징에서 벗어나 산문체로 기술되었다. 그리고 박덕만과 호조참판 최익수를 등장시켜 신분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부정적인 이춘풍과 긍정적인 아내라는 원작의 이분법적 갈등구조에서 개작 텍스트는 다분법적 갈등구조로의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리얼리즘적인 개연성과 대립구조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춘풍과 아내 김씨, 박덕만은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고전소설의 주인공에서 벗어나 있다. 특히 개작 텍스트는 풍자와 해학 보다는 비판의식이 강하다.

그도 벼슬이 노상 싫지는 않았다. 허나 마음 허량한 그는 침착하게 들어앉아 작시(作詩)를 공부하기보다는 영농한 계집의 권주가를 드르며 술잔을 기우리는 게 몇곱 사는가 싶었다. 더욱이 과거(科擧)라는 게 도시가 조상의 권세(權勢)를 물려받았거나 뇌물(賂物)을 써 벼슬아치를 농간하지 않고, 한 개 평민(平民)의 자손으로 아모 배경도 없이는 겨누어 볼 것이 아니었다. 미리 몇장의 장원을 마련해놓고 그다음은 덮어놓고 시험지에

8) 송철호, 「이춘풍전에 있어서 풍자와 해학의 문제」, 『한국문학논총』 65, 2013, 161~162쪽.

붉은 작데기를 거어 바라바리 동지전(東紙廩)으로 실어내는 걸 안 춘풍은 아예 과거보기를 단념할 밖에 없었다.⁹⁾

인용된 부분은 춘풍이 유흥문화에 빠진 이유가 개인적인 성격에도 있지만 과거제도의 비리와 같은 부조리한 사회에 있다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기영의 소설 「서화」(1933)에 등장하는 돌쇠가 노름을 하는 이유는 돌쇠가 악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제치하 농촌이라는 닫힌 사회 때문이다. 춘풍의 파락호 행각에도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작 텍스트는 원작과 상이한 결말을 가지고 있다.

내외가 서로 웃고 전후사를 서로 다 이르며 인하여 호조돈을 다 수보하고, 춘풍이 개과하여 주색잡기 전폐하고 치가를 일삼아 형세도 요부하고 유자 생녀하여, 감사가 과만하여 올라온 후, 안팎 없이 다니며 평생 신을 끊지 않고 대대손손이 섬기더라.¹⁰⁾

원작이 개과천선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면 개작 텍스트는 춘풍이 유선달의 죽음에 대해 전해들은 후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깊이 반성하며 아내의 청춘도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미안해한다. 그리고 “춘풍은 쓸쓸했다. 쓸쓸하다느니 보다 세상이 무서웠다”라고 생각한다. 개과천선과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먼 결말처리다. 허무주의나 도교적인 분위기도 읽을 수 있다. 리얼리즘 소설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전망도 보여주지 않는다.

IV. 작은 마무리

이상으로 김영석의 개작 장편소설 『이춘풍전』의 서지적인 측면과 원작과

9) 김영석, 앞의 책, 2쪽.

10) 구인환, 『배비장전』, 신원문화사, 2003, 115쪽.

의 일차적인 비교를 해보았다.

개작 텍스트를 발간된 협동문고는 해방 후 조선금융조합연합회가 친일적인 성격을 불식시키고 민심을 얻고자 하는 목적과 좌익단체의 대중 계몽과 선전을 위한 목적이 중첩되어 있었다. 개작 의도는 김영석의 작가의식과 함께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대중화론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개작 텍스트는 원작에 없는 모티프들이 삽입되어 서사의 개연성을 높였고, 입체적인 성격 창조와 최익수와 같은 악당을 등장시켜 리얼리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원작이 부정적인 이춘풍과 긍정적인 아내라는 이분법적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개작 텍스트는 악당 호조참판 최익수를 등장시켜 다분법적인 갈등구조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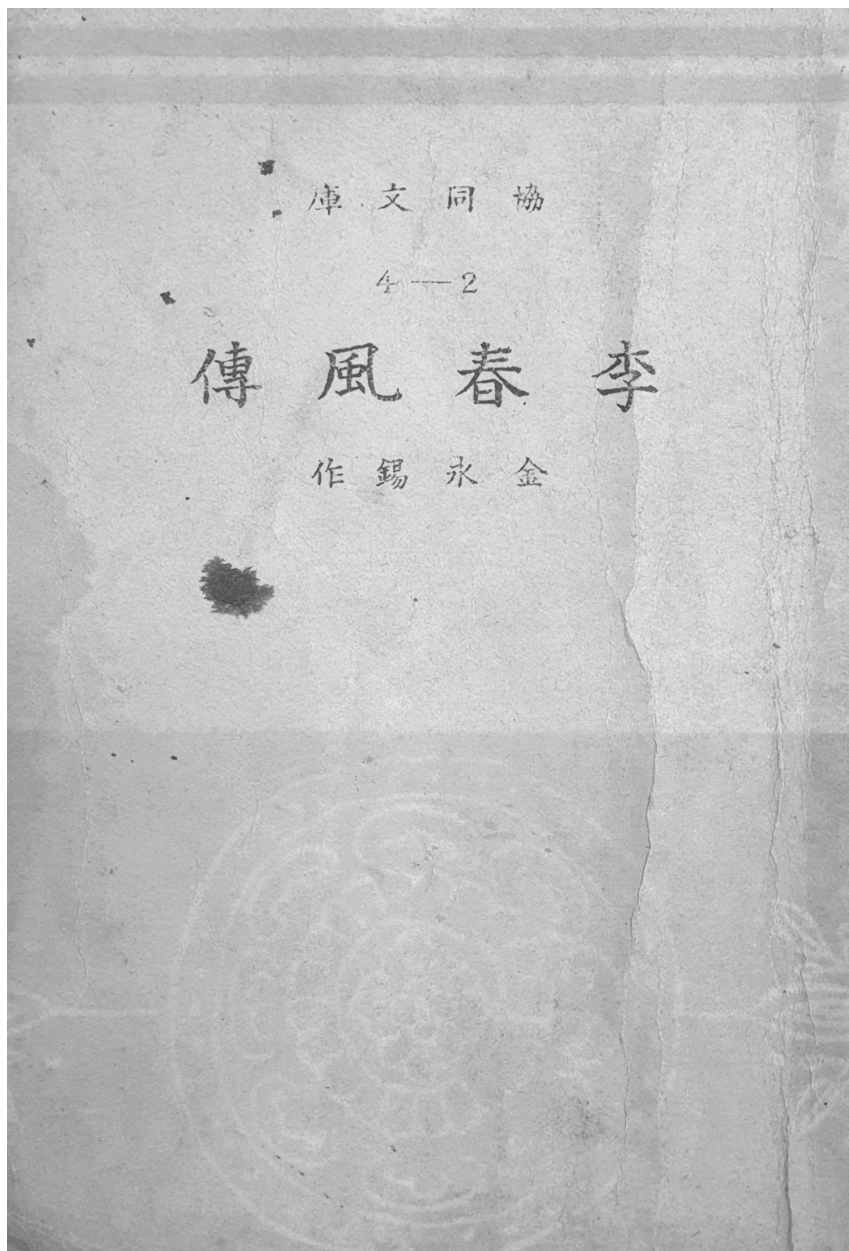
원작의 결말처리가 개과천선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개작 텍스트는 전망이 뚜렷하지 않고 허무주의나 도교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작 장편소설 『이춘풍전』은 해방직후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문학사의 사료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춘풍전』이 원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필사된 여러 이본으로 전해지었고 있기 때문에 개작 텍스트 또한 새로운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지적 상황 속에서 ‘활자로 된 최초의 『이춘풍전』’이라는 작가의 주장이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전소설을 현대소설화 하였기 때문에 개작 텍스트는 주제적인 제한과 불완전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춘풍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인 성격으로 형상화하여 작가가 그리려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작 텍스트의 현대소설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작 장편소설 『이춘풍전』은 김영석 문학세계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문학 텍스트들을 관통하고 있는 작가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텍스트가 아니다. 오히려 행방직후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구인환, 『배비장전』, 신원문화사, 2003.
- 김영석, 『이춘풍전』 협동문고 4-2,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7.
- 권오숙, 「[베니스의 상인]과 〈이춘풍전〉의 비교문학적 연구」, 『Shakespeare Review 50.1』,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14.
- 김남천, 「문학의 교육적 임무」, 『문화전선』, 1945.
- 김영석, 「문학자의 새로운 임무-문화공작자로서의 문학자」, 『백제』, 백제사, 1947.
- 송철호, 「이춘풍전에 있어서 풍자와 해학의 문제」, 『한국문학논총』 65, 2013.
- 윤희영, 「김영석 문학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8.
- 최재성, 「해방~625전쟁 직전 시기 금융조합의 조직 재건과 그 중심인물」, 『한국근현대사연구』 4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김영석(1947), 『이춘풍전』(조선금융조합연합회) 표지 이미지